

권수정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정의당)

1. 세종문화회관에 있는 삼청각 노동자들은 세종문화회관에서 함께 일하고 있지만 삼청각이 민간위탁사업장인 관계로 정규직화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익형 민간위탁사업장인 이유로 생활임금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세종문화회관 노동자들과 분리되어 비정규직 정규직화, 임금 및 처우에서 차별적 요소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요?

□ 세종문화회관과 삼청각은 업무성격과 사업장 등이 상이한 별도의 조직입니다

- 세종문화회관의 주요 업무는 9개 예술단 운영, 공연장 운영, 전시장 운영, 청소년 예술인재 육성 등 문화예술 관련인 반면, 삼청각의 주요 업무는 한식당 및 다원(커피숍) 운영, 웨딩 및 연회 운영 등 식음료 관련 업무입니다. 따라서 세종문화회관 직원은 공연기획, 예술행정 등의 업무를 하며 부서 순환보직을 하지만, 삼청각 직원은 한식당 홀서빙, 주방 운영 등의 직무로 채용, 고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삼청각은 서울시가 세종문화회관에 기간을 정하여 위탁한 기관이며 현재도 서울시가 삼청각 운영에 적합한 업체를 찾을때까지 한시적으로 1년간만 운영하도록 연장이 되어있는 시설입니다. 이에 반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기본 전제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입니다. 삼청각의 경우 세종문화회관이 서울시로부터 기간이 정해진 기간 동안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시지속적인 업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임금의 경우 세종문화회관 내에도 직무 및 직급에 따라 임금체계가 달리 운영되고 있으며 삼청각은 특히 식음료 사업 특성에 맞는 임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세종문화회관 정원 현황 : 총 510명

- 정 규 직 : 107명

- 예술단원 : 244명

- 공 무 직 : 159명(일반공무직 39명, 시설공무직 120명)
 - * 삼청각은 정원의 별도 인력으로 운영
- 또한 삼청각 직원은 직종, 직급체계 등의 차이로 보수체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세종문화회관 : 1~3급(연봉제), 일반직 및 기술직 4 ~ 7급(호봉제), 예술단(호봉제), 공무직(연봉제) 등
 - 삼청각 : 총지배인, 지배인, 주방장, 캡틴, 계약직 직원 등으로 구분되며 급여는 총지배인, 지배인, 주방장, 접객 등에 따라 지급기준 상이
- 삼청각의 복리후생제도는 세종문화회관에 준하여 운영되므로 차별적 요소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 복리후생 지원 : 명절상여(100%), 선택적복지제도(약 1,150포인트), 명절상품권(3만원), 기념일 상품권(25천원), 동호회 지원 등
- 삼청각은 수익창출형 위탁사무 기관으로 「2018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별도의 재정 지원없이 자체 수입으로 직원 인건비, 사업비 등을 총당하는 구조이기에 생활임금 적용시 재정자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번은 서울시에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작성 자	세종문화회관	직 위	성 명
	삼청각사업TF	팀 장	김주석
	☎ 740-3206	담당자	김진수
	작성 일 : 2018. 12.		